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 (Pick&Back)’

- **뭐먹고 살래???** : 현장에서 성장동력 Pick, 투자까지 Back -
- 구윤철 부총리, 5극3특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전 지역의 미래먹거리 점검
- 기업·경제단체·전문가 등 논의 통해 성장동력 발굴(Pick)과 체계적 지원(Back) 연계
- 첫 일정으로 해남 솔라시도 방문,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추진에 의기투합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16일(화)-6.17일(수) 이틀 간의 서남권·대경권 방문을 시작으로 5극3특 전 지역의 미래먹거리 산업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과거 빠른 성장을 가져왔던 수도권 1극 중심의 경제발전은 지역소멸과 성장잠재력 저하를 가져오는 한계에 달했으며,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되었다. 지방이 중심이 되어 5극3특을 중심으로 각 권역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독자적인 초격차 성장 엔진을 장착,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전 국토를 넓고 고르게 활용하는 ‘국토공간 대전환’을 통해 사람·기업·자본이 모여드는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구축하고자 한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맞춤형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규제완화, 세제, 재정·금융 등 패키지 지원을 전폭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구 부총리는 금일부터 순차적으로 5극 3특 전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미래 먹거리를 발굴(Pick)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역의 기업·경제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체계적 지원(Back)으로 연계해 나갈 것이다.

[전남해남솔라시도 방문 및 제3차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개최]

구 부총리는 첫 일정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도시이자 전라남도의 핵심 성장 동력인 해남 솔라시도 현장을 방문하여 데이터센터 부지와 태양광 발전단지 등을 둘러보고 관련 기업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국제적 에너지 안보 위기로 인해 신속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고성능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은 우리나라의 녹색대전환(GX)을 견인하는 핵심 사업이다.

<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제3차 회의 개요 >

· 일시 및 장소: '26. 6. 16.(화) 16:00~18:00, 해남 솔라시도

· 참석자

<정부·경제단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전라남도 기업도시담당관, 에너지산업국장,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기업> 두산에너빌리티, SK이노베이션 E&S, 한화솔루션, BS산업,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탑솔라, 다스코, 유일, 한국전력공사, 대한조선, 케이씨

<대학·연구소> 한전공대, GIST, 전남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구 부총리는 “솔라시도는 첨단산업·재생에너지·관광 등 미래산업과 친환경 성장을 선도할 대한민국의 대표 신성장 거점”으로 솔라시도가 가진 잠재력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이어서 “정부는 기업의 탈탄소화 부담은 덜고, 핵심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정, 세제, 금융 및 제도적 지원을 담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 등 녹색대전환(GX) 정책 방향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은 정부가 ①기업에 부담이 아닌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되는 “신성장 동력이 되는 GX”와, ②개인·기업·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모두의 GX”, 그리고 ③향후 10년간 재정투자 대폭 확대, 혁신적인 세제 인센티브, 녹색·전환금융,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GX”를 추진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어 구 부총리는 “지역의 재생 에너지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차세대 초고효율 태양광 기술 확보·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❶ 초격차 R&D로 '30년까지 초고효율(35%) 텐덤셀 양산과 함께 ❷ 산·학·연 협력을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원천기술 확보 및 건물·웨어러블·모빌리티 등 분야 세계최초 상용화를 추진*하고, ❸ 도심형(건물일체형 태양광)·수송형·수상형·영농형 등 적용공간 확장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하는 등 사용처를 다각화한다.

* (세계 최초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상용화 사업) 단일접합·탠덤·유연·투광형까지 적용가능한 대면적(0.72㎡) 고효율·고안정성 페로브스카이트 원천기술 확보 및 상용화 제품 생산 (26~30년 437억원)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이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지역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경쟁력이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화답하며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녹색대전환 추진에 뜻을 같이했다.

구 부총리는 금일 해남 솔라시도 방문에 이어 내일 6.17(수)에는 광주의 AI 산업융합 집적단지과 구미의 LG이노텍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Back)' 일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혁신성장실 지역경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대연 (044-215-4570)
		담당자	사무관 윤현곤 (gonnnn@korea.kr) 사무관 박주현 (zoopark@korea.kr) 사무관 이동은 (movingiz@korea.kr) 주무관 백철민 (novalet@korea.kr)
담당 부서	혁신성장실 기업환경과	책임자	과 장 장인주 (044-215-4630)
		담당자	서기관 박지영 (jy0505@korea.kr) 사무관 김정진 (jeongjin11@korea.kr) 사무관 이지현 (2zhyun@korea.kr) 주무관 이민섭 (lms1446@korea.kr)
담당부서 <협조>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	책임자	팀 장 강민재 (02-6050-3442)
		담당자	연구원 박경언 (pgu@korcham.net)

